

##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 그 특징\*

박 영 신\*\*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만 4세, 6세와 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그 특징,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제시하고, 비허용성, 심각성, 벌의 정도,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 그리고 일반성의 준거판단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6세 아동들은 심각성, 8세 아동들은 심각성, 벌의 정도와 일반성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다. 실험 2에서는 동양 문화권 특유의 어른에 대한 존경과 관련된 사회관습적 규칙에서 도덕화 경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덕적 규칙,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과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들을 제시하고, 비허용성, 심각성, 규칙독립성, 일반성과 벌의 정도의 준거판단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세 연령의 아동들이 모두 심각성에서 세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여 도덕적 규칙 위반행동, 어른에 대한 규칙 위반행동, 일반적 규칙 위반행동의 순으로 나뉘게 보였고, 6세와 8세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과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이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더 일반성을 갖는다고 보아서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에서 도덕화 경향이 나타났다. 실험 3에서는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덕적 결과 즉 타인에게 입힐 피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관습적 규칙과 그렇지 않은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행동을 제시하고 심각성, 권위독립성, 일반성, 벌의 정도와 규칙독립성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6세 아동들은 모든 준거판단에서 그리고 8세 아동들은 심각성과 벌의 정도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여 전자의 규칙에 대해 더 도덕적 규칙처럼 반응하였다. 실험 4에서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계층이 다른 만 5세 아동들에게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여러 준거판단에서 평가하게 하고 위반행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게 했다. 높은 사회계층의 아동들만이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위반행동에 대한 정당화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도덕적 위반행동을 타인에게 돌아갈 피해나 정당성으로, 또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사회규칙이나 제도의 위반으로 설명하여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다.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041-C00516).

\*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하도록 허락해 주셨던 여러 초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 연구보조자로 수고한 조숙진 선생과 피험자 테스트에 수고한 신귀옥, 정연희, 배세림과 전현희에게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이 연구에 대해 좋은 코멘트를 주신 익명의 reviewer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yoshpark@mail.paichai.ac.kr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은 여러 가지이다. 대표적인 것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이다(Turiel, 1983; Turiel, 1995). 도덕적 규칙은 정의(justice), 타인의 권리(right), 타인의 행복(welfare)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이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된다 등이 전형적인 도덕적 규칙의 예이다. 이에 반해 사회관습적 규칙이란 특정 사회내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균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이다. 남자와 여자의 행동방식, 옷입는 방식, 사람을 부르는 방식 또는 인사하는 방식 등에 대한 규칙이 이에 속한다.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도덕적 규칙은 사람들 사이의 동의와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사회관습적 규칙은 동의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들 사이의 합의가 없더라도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되지만,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는 사람들의 합의가 없다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도 좋다. 둘째, 도덕적 규칙은 문화권이나 사회에 관계없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사회관습적 규칙은 문화권이나 사회에 따라 상대적인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쳐서 안된다는 규칙은 미국이나 한국이나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동양 사회에서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규칙이지만 서양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셋째, 도덕적 규칙은 비개인적이어서(impersonal) 개인적 선호나 개인적 성향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지만 사회관습적 규칙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된다는 규칙은 원치 않아도 지켜야 하지만, 원치 않으면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개념적 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되어 왔다.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여러 준거판단(criterion judgement)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판단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준거판단이란 앞에서 살펴 보았

듯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는 다양한 차원들이다. 준거판단은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 데 좀 더 본질적인 것들과 부수적인 것들로 나눌 수 있다. 본질적인 것들은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데 더 중요한 특성들에 대한 것으로 어떤 규칙의 위반이 허용되는지 않는지의 비허용성, 어떤 규칙을 없애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변경가능성, 어떤 규칙이 다른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일반성,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인 규칙이나 법칙과 무관한지 또는 관련이 있는지의 규칙독립성,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권위에 달려있는지 또는 아닌지의 권위독립성 등이다. 부수적인 준거판단들은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데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두 종류의 규칙에서 차이나는 특성들로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의 심각성과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하는지의 벌의 정도 등이다.

여러 준거판단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구분은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에서는 동서양에 관계없이 미국(Arsenio & Ford, 1985; Nucci, 1981; Tisak & Turiel, 1984; Tisak & Turiel, 1988), 브라질(Nucci, Camino, & Sapiro, 1996), 버진 아일랜드(Nucci, Turiel, & Encarnacion-Gawrych, 1983), 인도(Bersoff & Miller, 1993), 그리고 나이지리아(Hollos, Leis, & Turiel, 1986) 등에서 일관성있게 발견되었다. 즉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은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더 위반해서는 안되고, 더 일반성을 가지며, 더 규칙이나 권위로 부터 독립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도덕적 규칙의 위반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보다 더 나쁘고 또 벌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개념적 구분은 발달과정에서 상당히 일찍 나타나서 32개월 밖에 안된 아동들도 부분적으로는 이 두 규칙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다(Smetana & Brages, 1990). 나이가 많은 학령전기 아동들은 이야기로 제시된 가

상적인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들을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Crane & Tisak, 1995b; Nucci & Turiel, 1978; Siegal & Storey, 1985; Smetana, 1981, 1985; Smetana, Schlagman & Adams, 1993; Tisak, 1993) 실제 관찰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위반행동들에 대해서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Smetana, Schlagman & Adams, 1993). 흥미롭게도,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정상 아동들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거부당하거나 (Sanderson & Siegal, 1988) 어른들에게 무시 또는 학대당하는 유아들에서도 나타났다(Smetana, Kelly, & Twentyman, 1984). 이 결과들은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특정 문화권이나 나라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이나 나라에서 나타나며, 정상적인 사회적 경험을 가진 정상 아동들과 비정상적인 사회적 경험을 가진 아동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임을 시사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학령전기부터 일찍 나타나기 시작하여 학령기가 되면 상당히 안정됨을 보여준다.

한국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개념적 구분에 대한 연구들도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 5세, 9세, 12세, 15세, 18세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Song등의 연구(1987)에서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일반성, 규칙독립성과 비허용성의 준거판단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두 규칙의 위반행동들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여서 도덕적 규칙은 의무, 정의나 타인의 행복이라는 면에서 또 사회관습적 규칙은 권위, 사회적 동조, 개인적 이유 등의 면에서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개인의 가치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이나 서양과는 달리 (Miller & Bersoff, 1992) 한국문화에서는 집단적 가치, 집단이나 권위에 대한 복종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규칙에 대한 아동들의 경험이 서양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동들에서도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개념

적 구분이 나타남을 보여주면서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차문화적 연구들과 더불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개념적 구분의 보편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는 이와는 다른 결과를 발견하고 있다. 예를 들어, Song등의 연구와 비슷한 연령층, 즉 5세, 8세와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김 보들맘(1993)의 연구에서는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일반성에서는 8세와 11세 아동들만이 두 규칙을 구분하였고 규칙독립성에서는 어떤 연령의 아동들도 두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5세 아동들이 심각성, 규칙독립성, 일반성과 별의 정도에서 두 규칙을 구분함을 발견한 장금순(198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령전기 아동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한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나(오영희와 박영신, 1998) 일부 제한된 준거판단에서만 발견하였다. 3세, 4세, 5세와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보가와 송미화(1996)의 연구에서도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4세, 5세와 6세 아동들이 별의 양의 준거판단에서 두 규칙을 구분하였고, 비허용성, 규칙독립성이나 일반성에서는 어떤 연령의 아동들도 두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와 비슷하게 박영신(1999)과 송미화(1997)도 3세, 4세와 5세 아동들이 심각성과 별의 정도에서 두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규칙독립성과 일반성에서는 두 규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령기 아동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학령전기 아동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구분이 일부 준거판단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3.5세된 아동들은 포괄적인 준거판단들, 즉 일반성,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 비허용성과 심각

성의 다섯 가지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한 반면(Smetana & Brages, 1990) 한국의 3, 4, 5세 아동들은 단지 심각성과 벌의 양의 두 준거판단에서만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다. 즉 미국의 학령전기 아동들은 두 종류의 규칙의 구분에 결정적인 준거판단 뿐 아니라 부수적인 준거판단 모두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한데 반해 한국의 학령전기 아동들은 부수적인 준거판단에서만 두 규칙을 구분하였다. 게다가 한국 아동들은 6세가 되어도 비허용성,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이나 일반성과 같이 중요한 준거판단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더 많은 아동들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의 본질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뒤따르지 못했다. 이런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서구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성장하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과정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한국 아동들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미국의 아동들에 비해 과연 뒤지는지를 이전 연구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한국 아동들의 개념화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김상운, 2000; 송명자, 1988; 송명자, 1992; 송명자와 김상운, 1987; Song, Smetana, & Kim, 1987) 한국 아동들이 미국 아동들에게는 사회적 관습인 인사하기나 자리양보하기 등을 마치 도덕적 규칙인양 보는 도덕화(moralizing)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 아동들에서 이런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이런 경향은 어떤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인지 또는 한국 아동들이 지닌 보편적인 특징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한국 아동들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나타난다면 이런 특수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 실 험 1

실험 1의 목적은 한국 아동들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실험 1에서는 한국 아동들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미국의 아동들보다 뒤지는지를 이전 연구들을 두가지 측면에서 확장하여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규칙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는 준거판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준거판단들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허용성, 심각성, 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과 일반성의 여섯 가지 준거판단에서 아동들의 이해를 평가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준거판단을 포함시킴으로써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이 어떤 준거판단에서부터 먼저 나타나는지 또는 동시에 나타나는지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둘째, 학령전 아동들과 더불어 초등학교 2학년 아동들을 포함시켜서 두 영역에 속하는 규칙에 대한 이해가 학령전기에서 학령기로 가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만약 아동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한다면 도덕적 위반행동을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허용할 수 없고, 더 나쁘고, 더 벌을 받아야 하고, 더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서 안되며, 더 권위나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또한 이런 모든 경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분명해질 것이다.

## 연구방법

### 피험자

만 4세아 24명(3년 9개월-4년 9개월), 만 6세아 24명(5년 3개월-6년 8개월), 만 8세아 24명(7년 9개월-8년 9개월) 총 72명이 참여하였다. 각 연령에서 남녀의 수는 같았다. 만 4세아와 6세아들은 대전의 동구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서구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학중인 아동들이었고 만 8세아는 대전 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동들이었다. 대부분의 아동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 또는 중하정도에 속하였다.

### 자 료

박영신의 연구에서(1999) 사용된 네 개의 도덕적 위반행동과 (친구에게 물뿌리기, 친구 머리카락 당기기, 혼자서만 그네타기, 친구의 모자 훔치기) 네 개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 (책상 위에 올라가기, 선생님에게 인사 안하기,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 대한 총 여덟 개의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이야기의 내용을 칼라로 그려서 코딩하여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의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그림 중 위반행동의 중요한 부분은 움직임으로 보여주었다. 이야기는 도덕적 이야기와 사회관습적 이야기를 교대로 들려주되 각 규칙내에서 네 개의 이야기의 순서를 무선으로 결정하였고, 모든 아동들은 동일한 순서로 이야기를 들었다.

### 절 차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로 10년 정도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명의 여자 실험자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두 명의 여자 실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학령전기 아동들은 각 유아교육 기관에 있는 조용한 방에서, 초

동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서 개인별로 실험을 받았다. 실험자들은 아동들에게 간단하게 실험에 대해 소개한 다음 각 위반행동에 대해 여섯 가지의 질문을 동일한 순서로 하였다. 첫째 질문은 이야기에 나온 위반행동의 비허용성에 대한 것으로 위반행동을 해도 좋은지를 물었다(예: 이 아이가 친구의 머리카락을 당겼어. 이러는 것이 나빠 좋아?). 두 번째 질문은 첫째 질문에서 나쁘다고 한 아동들에 한해서 그런 위반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를 크기가 다른 세 개의 붉은 동그라미를 제시하고 나쁜 정도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선택하게 하였다(예: 조금 나빠, 많이 나빠, 많이 많이 나빠). 세 번째 질문은 위반행동이 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푸른색 동그라미를 제시하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선택하게 하였다(예: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할까? 조금, 많이, 많이많이 받아야 할까?). 네 번째 질문은 권위독립성에 대한 질문으로 위반행동에 대한 평가가 성인의 존재에 의존하는지를 물었고(예: 선생님은 이 아이가 친구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것을 못 보셨어. 선생님이 모르셔도 친구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것이 나쁘니?), 다섯 번째 질문은 규칙독립성에 대한 질문으로 위반행동에 대한 평가가 규칙의 존재에 의존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예: 친구의 머리카락을 당기면 안된다고 우리가 정한 약속은 없어. 약속이 없어도 친구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것이 나쁘니?). 마지막 질문은 일반성에 대한 것으로 그런 위반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도 허용되는지를 물었다(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먼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친구의 머리카락을 당기면 될까 안될까?). 실험의 다른 세부적 절차는 박영신(1999)의 실험과 동일하였다.

## 결 과

심각성과 벌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준거판단에

서는 가장 큰 원에 3점, 중간 크기의 원에 2점, 그리고 가장 작은 원에 1점을 주어 채점하고 비허용성,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과 일반성에 대한 반응은 '예'와 '아니오'로 구분하여 긍정적인 대답은 0점, 부정적인 대답은 1점으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비허용성의 준거판단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위반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권위와 규칙독립성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위반행동을 권위독립적 또는 규칙독립적으로 보는 것이고 일반성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규칙이 일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섯 준거판단에 대한 아동들의 평균점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비허용성,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들의 점수가 거의 같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셀에서 피험자들의 반응에 전혀 변산이 없어서 통계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세, 6세와 8세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과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모두 허용할 수 없고, 권위와 규칙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이 준거판단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해 마치 도덕적 규칙처럼 반응하는 도덕화의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피험자들의 반응에 변산이 있었던 심각성, 별의 정도와 일반성의 준거판단에 대한 자료는 피험자

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3(연령)×2(성)×2(규칙의 종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을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나쁘게 보았다( $F_{1,64}=19.61, p<.01$ ).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 $F_{2,64}=3.60, p<.05$ ) 또 남아보다는 여아들이 위반행동을 더 나쁘게 보았다( $F_{1,64}= 6.11, p<.05$ ). 연령×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에서 두 규칙의 심각성 점수를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6세아( $t=2.53, df=23, p<.05$ )와 8세아들만이( $t=3.45, df=23, p<.01$ ) 두 규칙을 구분하였다.

심각성과 비슷하게,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벌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F_{1,63}=5.84, p<.05$ ), 나이가 어릴수록 위반행동에 더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F_{2,63}=7.83, p<.01$ ). 연령×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각 연령에서 두 규칙에 대한 벌의 정도의 점수를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8세아들만이( $t=2.48, df=23, p<.05$ ) 두 규칙을 구분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일어나서 안된다고 보았고( $F_{1,64}=11.17, p<.01$ ) 이러한 경향은 연령과 상호작용을 보여서( $F_{2,64}=4.57, p<.05$ ) 각 연령

표 1. 연령과 규칙의 종류에 따른 각 준거판단에서의 아동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4세		6세		8세	
	도덕적	사회관습적	도덕적	사회관습적	도덕적	사회관습적
비허용성	.99 (.05)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심각성	2.67 (.37)	2.54 (.51)	2.61 (.36)	2.42 (.41)	2.47 (.42)	2.16 (.52)
벌의 정도	2.57 (.56)	2.56 (.55)	2.56 (.36)	2.44 (.51)	2.27 (.41)	2.05 (.45)
권위독립성	.01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칙독립성	.00 (.00)	.01 (.05)	.00 (.00)	.00 (.00)	.02 (.07)	.00 (.00)
일반성	.97 (.16)	.96 (.12)	1.00 (.00)	.98 (.07)	1.00 (.00)	.90 (.15)

에서 두 규칙에 대한 일반성 점수를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8세에서만 두 규칙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t=3.22$ ,  $df=22$ ,  $p<.01$ ).

요약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일부 준거판단에서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일부 준거판단에서는 아니었다. 즉 비허용성,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의 세 준거판단에서는 두 규칙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였으나, 심각성, 벌의 정도와 일반성의 세 준거판단에서는 두 규칙을 구분하였다. 또한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은 준거판단들에 따라 달라져서 4세에는 어떤 준거판단에서도 두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6세에는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8세에는 세 준거판단 모두에서 두 규칙을 구분하였다. 즉 두 규칙의 구분은 여러 준거판단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서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일반성과 벌의 정도이었다. 그러나 비허용성,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에서는 어떤 연령에서도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으며 특히 심각성, 벌의 정도와 일반성의 준거판단에서 두 규칙을 구분한 8세 아동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논 의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최 보가와 송미화(1995)는 3, 4, 5,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송미화(1997)는 3, 4,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각성과 벌의 양의 두 준거판단에서, 그리고 박영신(1999)는 3세와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만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함을 발견했다.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은 두 종류의 규칙이 구분되는 준거판단에 대해 일관성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즉 우리나라 아동들은 심각성, 벌의 정도, 때로는 일반성에서 두 규칙을 구분하고 있었고 다른 준거판단에서는 두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들과는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한국 아동들은 미국의 아동들보다는 훨씬 제한된 준거판단에서만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는 두 종류의 규칙이 구분되는 준거판단의 순서인데 미국 아동들에서는(Smetana 등, 1990) 일반성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이 34개월에 나타났고, 48개월에는 권위독립성, 규칙독립성과 심각성에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은 심각성과 벌의 정도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가장 먼저 구분하였고, 다음이 일반성이었고, 다른 세 준거판단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김보들만, 1993). 이 결과들은 우리나라 아동들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구분이 미국의 아동들에서 보다 늦게 발달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실험 1의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의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도덕적 판단의 확일성이다. 박영신(199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심각성과 벌의 정도를 제외한 모든 준거판단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들의 각 조건별 평균점수는 만점인 1점이나 0점에 아주 가까웠고 이러한 경향에는 개인차가 거의 없었다.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지 않은 비허용성,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의 여러 조건의 표준편차는 0에서 .05사이였고,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이 나타난 일반성의 준거판단에서도 각 조건의 표준편차는 0에서 .17 정도였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다양한 도덕적 사태나 사회관습적 사태를 서로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함을 말해 준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들은 또한 두 종류의 규칙의 구분에 결정적인 중요한 준거판단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해 도덕적 규칙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사회관습적 규칙을 도덕적 규칙보다 덜

규칙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관습적 규칙도 도덕적 규칙과 같은 정도로 규칙독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비허용성과 권위독립성의 준거판단에서도 비슷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을 도덕적 규칙과 동일시하는 경향 즉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 실 험 2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은 Song 등(1987)의 연구에서 최초로 지적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아동들은 사회관습적 규칙 가운데 어른들에게 인사하기, 손가락으로 먹기, 귀걸이끼고 메니큐어 칠하기, 복도에 신발두기와 같은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더 규칙독립적이고, 손가락으로 먹기보다 더 일반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관련된 규칙에서 도덕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는 인사하기와 같은 어른들과 관계있는 사회관습적 행동뿐 아니라 책상 위에 올라가기, 이야기 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와 같이 어른들과 관계없는 사회관습적 행동에서도 도덕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연구에 참여했던 99%의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허용할 수 없고, 91%의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행동이 권위와 규칙과 독립적이고, 96%의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보아서 사회관습적 규칙도 도덕적 규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는 아동들이 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사회관습적 규칙을 마치 도덕적 규칙처럼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Song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모든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어른들과 관련된 사회관습적 규

칙에 한하여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들에게 도덕적 규칙,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사회관습적 규칙 I)과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관련되는 사회관습적 규칙(사회관습적 규칙 II)을 위반한 행동을 다양한 준거판단에서 평가하게 하고 그 반응을 비교하였다. Song 등의 주장처럼 도덕화 경향이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관련되는 사회관습적 규칙에서 주로 나타난다면,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아동들의 평가는 그들이 같은 종류의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서 사회관습적 규칙 II에 대한 반응이 모든 준거판단에서 도덕적 규칙에 대한 반응과 동일하거나 또는 사회관습적 규칙 I에 대한 반응보다 도덕적 규칙에 대한 반응과 더 유사할 것이다. 즉 아동들은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어른에 관한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더 허용할 수 없고, 더 나쁘며, 더 규칙독립적이고, 더 일반적이며, 더 벌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화 경향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면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은 도덕적 규칙에 대한 반응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 연구방법

### 피험자

실험 2에는 만 4세아 24명(4년 1개월- 4년 10개월), 만 6세아 24명(6년-6년 11개월), 만 8세아 24명(8년-8년 11개월) 총 72명이 참여하였다. 각 연령마다 남녀피험자의 수는 같았다. 만 4세아와 6세아들은 대전의 중구와 서구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학중인 아동들이었고 만 8세아들은 대전의 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동들이었다.



자 료

실험 2에서는 도덕적 위반행동 세 개 (친구에게 물뿌리기, 혼자서 그네타기, 친구모자 훔치기)와 여섯 개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은 일반적 사회적 규칙에 대한 위반행동 세 개와(책상위에 올라가기, 이야기 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 어른들에 대해 존경을 표하지 않는 세 개의 행동(선생님에게 인사안하기, 선생님 말듣지 않기, 선생님에게 반말하기)이었다.

절 차

실험 1에 참여하였던 실험자들이 실험 2에도 참여하였다. 실험 2에서는 권위독립성의 준거판단을 제외한 비허용성, 심각성, 규칙독립성, 일반성과 별의 정도의 다섯 준거판단을 사용하였고 차례대로 질문을 하였다. 실험 1과는 달리 심각성과 별의 양에 대한 질문을 띄어 놓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동들이 연속적으로 두 개의 양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에 두 판단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험의 다른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결 과

다섯 준거판단에서 아동들의 반응의 평균점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들을 3(연령)×2(성)×3(규칙의 종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1에서 처럼 비허용성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에는 거의 변산이 없어서 변량분석을 하지 않았다. 비허용성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아동들이 도덕적 위반행동과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모두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연령( $F_{2,63}=4.94, p<.05$ )과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_{2,126}=27.51, p<.01$ ). 세 종류의 규칙에 대한 심각성 점수의 평균을 t-점증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규칙의 점수는 2.68로 사회관습적 규칙 I의 점수 2.29( $t=6.95, df=69, p<.01$ )와 사회관습적 규칙 II의 점수 2.46( $t=4.14, df=69, p<.01$ )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두 종류의 사회

표 2. 연령과 규칙의 종류에 따른 각 준거판단에서의 아동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4세			6세			8세		
	도덕적	사회관습적		도덕적	사회관습적		도덕적	사회관습적	
		I*	II*		I	II		I	II
비허용성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97 (.09)	.99 (.07)
심각성	2.72 (.38)	2.47 (.57)	2.62 (.39)	2.77 (.27)	2.35 (.39)	2.46 (.40)	2.54 (.43)	2.05 (.43)	2.30 (.45)
규칙독립성	.04 (.20)	.04 (.20)	.04 (.20)	.01 (.07)	.06 (.21)	.08 (.25)	.06 (.21)	.08 (.23)	.06 (.21)
일반성	1.00 (.00)	.99 (.07)	1.00 (.00)	.97 (.14)	.88 (.16)	1.00 (.00)	.98 (.07)	.86 (.17)	.98 (.07)
별의 정도	2.61 (.54)	2.50 (.49)	2.57 (.52)	2.53 (.39)	2.24 (.46)	2.29 (.48)	2.22 (.42)	1.92 (.46)	2.12 (.47)

\* I :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

\* II :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

관습적 규칙의 점수도 서로 차이가 있었다 ( $t=-3.36$ ,  $df=68$ ,  $p<.01$ ). 즉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의 위반을 가장 나쁘게 보았고, 다음이 사회관습적 규칙 II의 위반이었고, 마지막이 사회관습적 규칙 I의 위반이었다. 또한 일반성에서도 연령 ( $F_{2,66}=4.66$ ,  $p<.05$ ),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 ( $F_{2,132}=19.24$ ,  $p<.01$ )와 연령×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 ( $F_{4,132}=3.53$ ,  $p<.01$ )가 유의하여 각 연령에서 세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일반성 점수의 평균을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4세 아동들은 세 종류의 규칙의 일반성을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6세와 8세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 II의 일반성을 비슷하게 평가하였으나 사회관습적 규칙 I은 도덕적 규칙이나 (6세,  $t=2.60$ ,  $df=23$ ,  $p<.05$ ; 8세  $t=3.71$ ,  $df=23$ ,  $p<.01$ ) 사회관습적 규칙 II (6세,  $t=-3.71$ ,  $df=23$ ,  $p<.01$ ; 8세,  $t=-3.71$ ,  $df=23$ ,  $p<.01$ ) 보다 일반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별의 정도에서도 연령 ( $F_{2,66}=10.92$ ,  $p<.01$ )과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 ( $F_{2,132}=6.59$ ,  $p<.01$ ) 유의하여 세 규칙에 대한 별의 정도를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도덕적 규칙에 대한 점수는 2.45로 사회관습적 규칙 I의 점수 2.22( $t=3.41$ ,  $df=71$ ,  $p<.01$ )와 II의 점수 2.33 ( $t=2.06$ ,  $df=71$ ,  $p<.05$ ) 보다 더 높아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이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벌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보았고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벌주는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규칙독립성에서는 어떤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논 의

실험 2에서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문제와 관련되어 어른에 대한 규칙의 도덕화 경향부터 살펴보겠다. 어른에 대한 규칙의 도덕화 경향은 별의 정도를 제외한 모든 준거판단에서 나타났다. 비허용성과 규칙독립성에서

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은 도덕적 규칙과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을 동일하게 보았다. 심각성에서도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을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도덕적 규칙과 더 비슷하게 보았다. 일반성에서는 4세 아동은 어른에 대한 규칙과 도덕적 규칙을 동일하게 평가하였고, 6세와 8세는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을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도덕적 규칙과 더 비슷하게 판단하였다.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에서는 훨씬 더 제한된 준거판단에서 도덕화 경향이 발견되었다. 모든 연령의 아동들은 비허용성과 규칙독립성에서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과 도덕적 규칙을 유사하게 평가하였고, 일반성에서는 4세 아동들만이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을 도덕적 규칙과 유사하게 평가하였다.

이 결과들은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서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른들에 관한 규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은 Song 등(1987)의 연구 결과나 송명자와 김상윤(198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에서는 어른들에 대한 규칙은 사회관습적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규칙처럼 간주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Song 등의 연구와 이 연구는 10 여년 이상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도 그 결과가 비슷하여 요즈음에 오면서 어른들의 권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실 험 3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나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송 명자(1992)가 지적했듯이 사회관습적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그것이 단지 규칙의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예를 들어, 간식시간에 차례지키기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관습적 규칙이지만 이를 어겼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평가는 규칙 자체만을 고려하느냐 또는 규칙의 위반으로 일어날 결과까지 고려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을 도덕적 규칙과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해 평가할 때 규칙 자체만이 아니라 해당 규칙의 위반으로 발생할 도덕적 결과, 즉 남에게 입히는 피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견해와 일치하여, Smetana(1985)는 학령전기 아동들이 어떤 사건을 도덕적으로 보느냐 사회관습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어진 위반행동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서 주어진 사건을 도덕적으로 보는 아동들이 사회관습적으로 보는 아동들보다 위반행동을 더 나쁘게 판단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Crane과 Tisak은(1995b) 도덕적 요소를 포함한 사회관습적 사태 즉 혼합적 사태(예, 수업시간에 손들지 않고 이야기하기, 부엌에서 그릇가지고 놀기)를 학령전기 아동들, 1학년과 3학년 아동들에게 제시했는데 아동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관습적 사태의 도덕적 요소를 점점 더 잘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3학년보다는 학령전기 아동들과 1학년 아동들이 혼합사태를 사회관습적 사태로 보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 결과는 미국 아동들에서는 도덕적 요소를 포함한 사회관습적 사태에서 도덕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해짐을 보여준다.

실험 3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해 판단할 때 사회관습적 규칙을 위반

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덕적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경향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관습적 규칙 가운데 해당 규칙을 위반했을 때 도덕적 결과를 수반하는 규칙(사회관습적 규칙 I) 즉 타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규칙과 그렇지 않은 규칙(사회관습적 규칙 II)을 선택하여 이 위반행동들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만약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아동들이 일반적으로는 사회관습적으로 지각되는 사태의 도덕적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면 여러 준거판단에서 타인에 대한 피해가 명백한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반응보다 도덕적 규칙에 대한 반응과 더 유사할 것이다. 또한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이 일으킬 도덕적 결과에 대한 이해가 연령이 따라서 증가한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포괄적인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이 구분될 것이다.

## 연구방법

### 피험자

이 연구에는 다른 실험과 마찬가지로 만 4세(4년-5년 5개월), 6세(6년 1개월-7년)와 8세(7년 10개월-8년 11개월) 아동들이 각 연령에서 남녀 12명씩 총 72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전의 중구와 서구에 소재한 유치원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들이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하에서 중상정도에 속했다.

### 자료

실험 3에 사용되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사회

관습적 규칙 가운데에서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세 개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되는 세 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규칙으로는 공부시간에 이야기하기, 장난감 정리하지않기, 줄서지 않고 끼어들기였다. 이 모든 행동들은 사회관습적 규칙을 어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공부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없게 되고, 줄서지 않고 끼어들면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가 비교적 적은 사회관습적 규칙으로는 남자가 매니큐어하기, 선생님 허락없이 교실나가기, 체육시간에 체육복 안입기였다. 이 행동들은 사회관습적 규칙을 어긴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앞의 위반행동들처럼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 절 차

실험 3에서는 심각성, 권위독립성, 일반성, 벌의 정도와 규칙독립성의 다섯 준거판단만을 사용하였고 차례대로 질문을 하였다. 다른 실험들에서 위반행동을 허용해도 좋다고 대답한 아동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험 3에서는 위반행동의 비허용성과 심각성을 한번에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이 아이는 친구에게 물을 뿌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아, 조금 나빠, 많이 나빠, 많이 많이 나빠?”로 물어보았다. 또 권위독립성은 실험 1에서는 “선생님은 이 친구가 친구에게 물 뿌린 것을 못 보셨어. 그래도 이 친구가 나빠?” 라고 질문했으나 이와는 달리 “만약 선생님이 친구에게 물을 뿌려도 좋다고 하셨다면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바꾸어 질문하였다. 규칙독립성에 대한 질문도 “다른 사람들이 친구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나빠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될까?”로 바꾸어 질문하였다. 앞의 실험들에서 아동들이 권위독립성과 규칙독립성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질문을 수정하였다. 다른 세부적인 절차는 다른 실험들과 동일하였다.

### 결 과

아동들의 연령과 규칙에 따른 평균 점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2(연령)×2(성)×2(규칙의 종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심각성에서는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 $F_{1,66}=33.25, p<.01$ )와 연령×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 $F_{2,66}=5.47, p<.01$ )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각 연령에서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심각성 점수를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6세( $t=6.32, df=23, p<.01$ )와 8세( $t=4.25, df=23, p<.01$ )에서 두 규칙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6세와 8세 아동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이 그렇지 않은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하였으나 4세 아동들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권위독립성에서는 연령( $F_{2,66}=3.20, p<.05$ )과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 $F_{1,66}=4.24, p<.05$ )가 유의하였다. 즉 4세 아동들보다는 6세와 8세 아동들이 모든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을 덜 권위독립적으로 보았다. 또한 아동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관습적 규칙이 그렇지 않은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더 권위독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비록 연령×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각 연령의 아동들의 판단을 비교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세 아동들만이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관습적 규칙을 그렇지 않은 규칙보다 더 권위독립적으로 보았다( $t=2.94, df=23, p<.01$ ). 일반성에

표 3. 연령과 규칙의 종류에 따른 각 준거판단에서의 아동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4세		6세		8세	
	사회관습적	사회관습적	사회관습적	사회관습적	사회관습적	사회관습적
	I*	II*	I	II	I	II
심각성	2.36 (.71)	2.25 (.72)	2.76 (.30)	2.14 (.59)	2.57 (.39)	2.21 (.53)
권위독립성	.90 (.23)	.92 (.25)	.83 (.34)	.67 (.34)	.90 (.21)	.83 (.26)
일반성	.93 (.14)	.93 (.17)	1.00 (.00)	.86 (.19)	.96 (.11)	.94 (.13)
벌의 정도	2.49 (.52)	2.32 (.58)	2.57 (.35)	2.25 (.56)	2.17 (.54)	1.97 (.61)
규칙독립성	.88 (.26)	.93 (.17)	.89 (.25)	.75 (.31)	.89 (.21)	.92 (.20)

\* I 도덕적 결과를 수반하는 규칙

\* II 도덕적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규칙

서도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 $F_{1,66}=6.08, p<.05$ )와 연령×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 $F_{2,66}=4.57, p<.05$ )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관습적 규칙이 그렇지 않은 사회관습적 규칙보다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경향은 6세 아동들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t=3.50, df=23, p<.01$ ). 벌의 정도에서는 연령과( $F_{2,66}=4.11, p<.05$ )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 $F_{1,66}=15.03, p<.01$ )가 유의하였다. 즉 4세와 6세 아동들보다는 8세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행동이 더 적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아동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관습적 규칙이 그렇지 않은 규칙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연령×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각 연령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점수를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6세( $t=2.60, df=23, p<.05$ )와 8세( $t=2.17, df=23, p<.05$ )에서 차이가 유의하였다. 규칙독립성에서는 연령×규칙의 종류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하여( $F_{2,66}=5.50, p<.01$ ) 각 연령에서 두 영역에 대한 평가를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6세 아동들만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관습적 규칙이 그렇지 않은 규칙에 비해 더 규칙독립적이라고 보았다( $t=2.46, df=23, p<.05$ ).

## 논 의

실험 3에서 도덕적 결과를 유발하는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을 그렇지 않은 위반행동보다 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4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6세에는 모든 준거판단에서, 8세에는 심각성과 벌의 준거판단에서 나타났다. 4세 아동들은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결과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6세와 8세 아동들은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여 사회관습적 규칙을 판단하였다. 사회관습적 사태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확인이 초등학교에 가서나 가능하다고 밝힌 Crane과 Tisak (1995b)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아동들은 미국의 아동들보다 사회관습적 사태의 도덕적 결과를 더 일찍부터 알고 있는 것 같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일찍부터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적 측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사회관습적 사태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면서 두 종류의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구분이 더 여러 준거판단에

서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은 4세에서 6세 사이에서는 지지되었으나 6세와 8세 사이에서는 아니었다.

#### 실 험 4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아주 다양하다. 연구된 한 요인은 유아교육으로 Siegal과 Storey(1985)는 유치원 경험의 정도가 도덕적 위반행동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쳐서 유치원 경험이 적은 유아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잘 구분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Crane과 Tisak(1995a)은 유치원 경험의 정도가 두 종류의 규칙의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발견하여 유아교육과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연구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사회계층이다. 브라질의 중산층과 하류계층의 9세와 15세 아동들을 모두 규칙독립성과 일반성에서 두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하류계층 아동들은 중산층 아동들보다 사회관습적 규칙을 더 규칙독립적으로 또 더 일반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Nucci, Camino, & Sapiro, 1996). 즉 브라질의 하류계층 아동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흑인 하류계층의 72개월된 유아들은 심각성, 규칙독립성, 다른 학교에서 특정 위반행동이 허용되는지의 다른 학교-일반성, 다른 집에서 특정 위반행동이 허용되는지의 다른 집-일반성, 벌의 정도의 다섯 가지 준거판단 가운데 다른 집-일반성에서만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고 다른 어떤 준거판단에서도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했다(Jagers, Bingham, & Hans, 1996). 그러나 위반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는 두 영역을 구분하여 타인에 대한 피해와 공정성 등에 대한 언

급은 사회관습적 사태보다는 도덕적 사태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사회적 질서, 벌, 행위자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언급은 도덕적 사태보다는 사회관습적 사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구분이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계층이 낮은 아동들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늦게 발달할 뿐 아니라, 사회관습적 규칙을 도덕적 규칙과 비슷하게 보는 특징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4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라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만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준거판단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였다.

#### 자 료

실험 1에 사용된 이야기 가운데 도덕적 이야기 세 개(친구 모자함치기, 혼자서만 그네타기, 친구에게 물뿌리기)와 사회관습적 이야기 세 개(책상에 올라가기, 이야기 시간에 돌아다니기, 손으로 밥먹기)를 사용하였다.

#### 피험자

대전의 유성구에 있는 두 유치원에 재학중인 만 5세 아동들 각각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하였다. 한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 이상의 수준이었고, 특히 부모들의 학력이 높아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동들의 부모들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아동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하에서 중정도에 속했으며 부모들의 학력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떨어졌다.

표 4. 연령과 규칙의 종류에 따른 각 준거판단에서의 아동들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사회계층 높은 집단		사회계층 낮은 집단	
	도덕적	사회관습적	도덕적	사회관습적
심각성	2.72 (.30)	2.38 (.50)	2.73 (.43)	2.63 (.46)
권위독립성	.92 (.23)	.93 (.23)	.92 (.21)	.94 (.15)
규칙독립성	.95 (.17)	.93 (.16)	.91 (.281)	.89 (.30)
일반성	.96 (.14)	.94 (.13)	.99 (.06)	.96 (.14)
별의 정도	2.44 (.43)	2.34 (.50)	2.62 (.44)	2.48 (.54)

### 절 차

여섯 개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아동들이 위반행동을 심각성, 권위독립성(예: 만약 선생님이 친구에게 물을 뿌려도 괜찮다고 하셨다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규칙독립성(예: 만약 사람들이 친구에게 물을 뿌리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일반성(예: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과 별의 정도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또한 각 위반행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말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정당화 질문을 포함시킨 것은 사회계층에 따라 아동들이 위반행동에 대해 준거판단상에서는 비슷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위반행동을 정당화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결 과

실험 4에서의 피험자들의 반응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 1과 2와는 달리 변산이 전혀 없는 셀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준거판단에서의 아동들의 점수를 2(계층)×2(규칙의 종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심각성( $F_{1,58}=17.44, p<.05$ )에서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일반성과 별의 정도

에서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한 수준에 미쳤다( $F_{1,54}=3.60, p<.1$ 과  $F_{1,58}=3.61, p<.1$ ).

그러나 계층의 주효과는 어떤 준거판단에서도 유의하지 않았고 단지 심각성에서 계층×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 $F_{1,58}=5.06, p<.05$ )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두 계층의 두 규칙에 대한 심각성 점수를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에서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점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t=3.94, df=29, p<.01$ )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는 아니었다. 즉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동을 사회관습적 위반행동보다 더 나쁘다고 보아서 두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는 두 규칙의 위반행동을 비슷하게 나쁘다고 보아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위반행동에 대한 정당화(justification)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반행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였다. 정당화의 범주는 Jagers 등의 (1996) 연구에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타인에 대한 피해' 범주에는 위반행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그 행동이 타인에게 해롭고, 공평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사회적 규칙 및 제도'의 범주에는 위반행동이 규칙을 어긴 것이라거나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임의적' 범주는 위반행동이

표 5. 사회계층과 규칙의 종류에 따른 정당화 범주별 평균 비율과 표준편차

정당화 범주	사회계층 높은 집단		사회계층 낮은 집단	
	도덕적	사회관습적	도덕적	사회관습적
타인에 대한 피해	.87 (.19)	.24 (.29)	.87 (.19)	.17 (.23)
사회적 규칙 및 제도	.04 (.14)	.30 (.29)	.01 (.06)	.57 (.33)
별	.03 (.10)	.04 (.14)	.01 (.06)	.00 (.00)
자신에 대한 피해	.00 (.00)	.30 (.24)	.02 (.08)	.20 (.21)
분류불가능	.04 (.11)	.09 (.17)	.08 (.17)	.07 (.16)

개인적 선택의 문제라거나 사소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규칙위반이라고 보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별’의 범주는 위반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벌을 주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보복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자신에 대한 피해’ 범주는 위반행동이 자신에게 해롭다고 보는 경우가 포함되었고 마지막으로 분류불가능 범주에는 위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들을 모두 포함시켰다. 위반행동에 대한 정당화의 범주별 비율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임의적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비율을 2(계층)×2(규칙의 종류) 반복측정에 의한 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타인에 대한 피해 범주( $F_{1,58}=271.30, p<.01$ ), 사회적 규칙 및 제도범주 ( $F_{1,58}=68.31, p<.01$ )와 자신에 대한 피해범주( $F_{1,58}=68.31, p<.05$ )에서 규칙의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도덕적 규칙에서, 사회적 규칙 및 제도를 어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반응과 자신에게 나쁘기 때문이라는 반응은 사회관습적 규칙에서 더 많아서 아동들은 두 종류의 위반행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였다. 계층의 주효과는 사회적 규칙 및 제도의 범주( $F_{1,58}=7.50, p<.01$ )를 제외하고는 어떤 범주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규칙 및 제도의 범주( $F_{1,58}=12.14,$

$p<.01$ )와 자신에 대한 피해의 범주( $F_{1,58}=4.47, p<.05$ )에서 계층×규칙의 종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여서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경향이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에서, 자신에게 해롭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경향은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였다.

### 논 의

실험 4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가 사회계층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토한 결과,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은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였으나 사회계층이 낮은 집단은 어떤 준거판단에서도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들이 심각성의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가장 먼저 구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발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반행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당화 자료에서는 별과 임의적 범주를 제외한 다른 세 범주 모두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 이는 선행연구(Jagers, Bingham, & Hans, 1996)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우리나라 5세 아동들은 도덕적 위반행



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는 자신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사회계층에 따라 별 차이가 없었다. 실험 4의 가장 큰 제한점은 아동들 가정의 수입 등 사회계층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단지 부모들의 학력과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 등의 정보에만 의존했다는 것이다. 특히 두 개의 유치원이 서로 다른 계층을 대표하였기 때문에 두 유치원 교사들의 태도, 교육방식 등의 영향이 사회계층의 영향과 혼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험 4의 결과는 단지 두 종류의 규칙의 이해에 미치는 사회계층의 영향에 대해 단지 예비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의 출현이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힐 수 있지만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아동들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발달하며, 그 발달과정이 다른 나라의 아동들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며 또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지, 또 이러한 특수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 또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미국 아동들보다 우리나라 아동들에서 더 늦게 발달하였다. 미국의 아동들은 아주 일찍부터, 즉 42개월경에 폭넓은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규

칙을 구분한데 반해 우리나라 아동들은 만 6세경에 심각성의 한 준거판단에서, 8세경에는 심각성, 벌의 정도와 일반성의 준거판단에서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였지만 중요한 준거판단으로 인정되는 규칙독립성에서는 (Tisak, 1995) 8세에도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초기에는 두 규칙을 단지 양적인 측면 즉 얼마나 나쁘고 또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하는지에서만 구분하고 있고 Turiel의 주장과 같이 서로 질적으로 다른 범주로 개념화하는 것은 상당히 늦게 발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쩌면 우리나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들을 지도할 때 규칙의 본질이나 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의 이유를 이해시키지기 보다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또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를 강조하여 지도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또 많이 경험하는 준거판단에서 두 종류의 규칙을 먼저 구분하게 될 지 모른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규칙독립성에서는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지 못했다.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이해와 아동들의 언어적 능력이 관계있음을 고려하여(Smetana & Brages, 1990), 규칙독립성에 대한 질문을 여러 실험에 걸쳐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의 반응에는 별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8세 아동들도 이 준거판단에서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동일한 경향이 일본 아동들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의 2학년의 12.5%와 4학년의 0%가 규칙이 없어도 교실에서 점을 씹어서는 안된다고 반응한대 비해(Turiel, 1983) 일본 2학년의 100%와 5학년의 91.7%가 규칙이 없어도 교실에서 점을 씹어서는 안된다고 대답해서 규칙독립성의 준거판단에서 강력한 도덕화의 경향을 보였다(Shuto와 Okajima, 1986; Naito, 1991, Takashi, 1994에서 재인용). 미국의 아동들은 이 준거판단에서는 42개월에도 두 규칙을 구분하였고 이 준거판단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을 구분하는 중요한 준거판단이므로 왜 동양아동들이 이 준거판단에서 특히 어려움을 갖는지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규칙독립성에서 동양아동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도덕화 경향은 Shuto가 지적했듯이 동양권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라는 좀 더 상위수준의 포괄적인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에 또 다른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네 실험 모두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에는 개인차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용자체가 확립적 판단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사용한 미국 아동들이나 다른 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개인간의 판단에 차이가 더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Song 등, 1987; 박영신, 1999; 오영희와 박영신, 1998; 최보가 등, 1996)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어 왔지만 연구자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도덕적 사태와 사회관습적 사태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확립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해 도덕적 규칙과 비슷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도덕화 경향은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에서도 나타나서 우리나라 아동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어른들과 관련된 사회관습적 규칙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도덕적 규칙으로부터 사회관습적 규칙을 분리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러나 어른에 대한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은 Song 등(1987)과 송 명자등(1987)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이(Gabennesch, 1990; Nisan, 1987; Shweder,

Mahapatra, & Miller, 1987)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구조나 전통과 관계된 규범은 관습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러한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은 남들에게 분명한 피해를 수반하는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같은 사회관습적 위반행동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반행동에 대해 그렇지 않은 위반행동에 대해서 보다 더 도덕적 위반행동처럼 반응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규칙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결과, 즉 타인이 입는 피해를 일찍부터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사회관습적 규칙의 평가에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아동들도 이렇게 사회화되기 때문에 사회관습적 사태를 판단할 때에도 규칙 자체보다는 그 규칙의 위반으로 다른 사람이 입게 될 피해에 더 민감할 지 모른다.

넷째, 우리나라 아동들이 두 종류의 규칙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더 나은 사회계층에 속한 아동들에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구분이 더 일찍 시작된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위반행동을 해서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정당화에서는 두 계층의 아동들이 모두 두 종류의 규칙을 구분하고 있어서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이 미국 아동들에 비해 문제를 갖는 이유를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특별한 특징이며 두 종류의 규칙 사이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며, 또 도덕화 경향을 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이 사회관습적 사태의 도덕적 결과

를 고려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도덕화 경향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발달하는지의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도덕화 경향이 성인들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박 영신, 2000; 송 명자 등, 1991)를 고려할 때 과연 도덕화 경향이 발달과 관련된 현상인지 또는 문화적 특수성과 관련된 현상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도덕화 경향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이런 도덕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들이 두 규칙사이의 개념적 구분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회관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은 다른 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계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낮은 사회계층의 어머니들은 동조를 강조하며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녀들과 별로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Jagers 등, 1995). 어쩌면 우리사회가 아동들에게 규칙에 대해 지도할 때 무조건적 동조를 강조하고, 규칙을 지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벌이나 꾸지람 등과 같이 규칙을 어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이 연구에서 관찰된 우리나라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에서의 특이성 즉 도덕화 경향, 규칙에 대한 구분이 심각성과 벌의 준거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 또 도덕적 또는 사회관습적 사태에 대한 판단에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도덕화의 경향과 교사나 부모들의 도덕교육의 방법 사이의 관련성도 더 체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보들맘. (1993). 도덕적 규칙 위반과 인습적 규칙 위반에 대한 아동의 개념.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상윤. (2000). 인지발달이론과 영역구분이론에 의한 한국인의 도덕성발달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 1-25.
- 박영신. (1999). 도덕적 규칙과 사회관습적 규칙에 대한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11-23.
- 박영신. (2000). 도덕적 규칙과 사회인습적 규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 : 사회인습적 규칙의 도덕화 경향. **인문논총**, 16, 121-136.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송명자, 조용하, 설기문과 김상윤. (1991). 한국 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9, 189-206.
- 송명자. (1988).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한림 정수봉총장 회갑기념논총**, 4, 227-241.
- 송명자. (1992). 도덕판단발달의 문화적 보편성: 영역구분모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65-80.
- 송명자와 김상윤. (1987). 아동의 도덕사태판단에 있어서 사회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140-149.
- 송미화. (1997). 유아·성인의 관계방식이 유아의 도덕개념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영희와 박 영신. (1998). 도덕적 규칙과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규칙에 대한 유아들의 판단. **인문논총**, 13, 175-190,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장금순. (1988). 5세 유아의 위반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와 송미화. (1996). 유아의 도덕적 및 인습적 규칙에 대한 판단. **대한가정학회지**, 34, 49-62.
- Arsenio, W.F., & Ford, M.E. (1985). The role of affective information i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Children's differentiation of moral

- and conventional events. *Merrill-Palmer Quarterly*, 31, 1-17.
- Bersoff, D.M., & Miller, J.G. (1993). Culture,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moral accountability judge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64-676.
- Crane, D.A., & Tisak, M.S. (1995a). Does day-care experience affect young children's judgements of home and school rul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 25-37.
- Crane, D.A., & Tisak, M.S. (1995b). Mixed-domain events: The influence of moral and conventional components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reason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 169-180.
- Gabennesch, H. (1990). The perception of social conventionality by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61, 2047-2059.
- Hollos, M., Leis, P.E., & Turiel, E. (1986). Social reasoning in Ijo children and adolescents in Nigerian commun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352-374.
- Jagers, R.J., Bingham, K., & Hans, S. (1996). Socialization and societal judgements among inner-city African-American kindergartners. *Child Development*, 67, 140-150.
- Miller, J., & Bersoff, D.M. (1992). Culture and moral judge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v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Naito, T. (1990). Moral education in Japanese public schools. *Moral Education Forum*, 15, 27-36.
- Nisan, M. (1987). Moral norms and social conventions: A cross-cultural comparis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9-725.
- Nucci, L. (1981). Conceptions of personal issues: A domain distinct from moral and societal concepts. *Child Development*, 52, 114-121.
- Nucci, L., Camino, C., & Sapiro, C.M. (1996). Social class effects on Northeastern Brazilian children's conceptions of areas of personal choice and social regulation. *Child Development*, 67, 1223-1242.
- Nucci, L.P., & Turiel, E. (1978). Social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00-407.
- Nucci, L.P., Turiel, E., & Encarnacion-Gawrych, G. (1983).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social concep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4, 469-487.
- Sanderson, J.A., & Siegal, S. (1988).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in, rejected and nonrejected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66-72.
- Shuto, T., & Okajima, K. (1986). Concepts of social rule in children. *Tshbuba Psychological Research*, 8, 87-98.
- Shweder, R.A., Mahapatra, M., & Miller, J.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 Kagan(Ed.), *The Emergence of Moral Concepts in Young Children*.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egal, M., & Storey, R.M. (1985). Day care and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6, 1001-1008.
- Smetana, J.G. (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metana, J.G. (1985).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transgressions : Effects of varying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related attribute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8-29.
- Smetana, J.G., & Brages, J.L. (1990). The development of toddlers' moral and conventional judg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36, 329-346.

- Smetana, J.G., Kelly, K., & Twentyman, C.T. (1984). Abused,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277-287.
- Smetana, J.G., Schlagman, N., & Adams, P.W.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ements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277-287.
- Song, M.J., Smetana, J.G., & Kim, S.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582.
- Takashi, N. (1994). A survey of research on moral development in Japan. *Cross-Cultural Research*, 28, 40-55.
- Tisak, M.S. (1993). Preschool children's judgements of moral and personal events involving physical harm and property damage. *Merrill-Palmer Quarterly*, 39, 375-390.
- Tisak, M.S. (1995). Domains of social reasoning and beyond. In Vasta, R.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11. pp. 95-130). London and Bristol: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Tisak, M.S., & Turiel, E. (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prudential rules. *Child Development*, 55, 1030-1039.
- Tisak, M.S., & Turiel, E. (1988). Variation in seriousness of transgressions and children's moral and conventional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352-357.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rality and conven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1995). The development of morality. In W. Damon, & N. Eisenberg(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rules

Young-shin Park

Pai Chai Univers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of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rules was examined with 4-, 6-, and 8-year-old Korean children. In Experiment 1, children evaluated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on six criterion judgements, nonpermissibility, seriousness, degree of punishment, authority contingency, rule contingency, and generalizability. Moral transgressions were judged to be worse in six- and eight-year-olds, but more generalizable and worth of more punishment than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in eight-year-olds. In Experiment 2, children evaluated moral and two kinds of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transgressions of general social-conventional rules and rules concerning respect for adults. Transgressions of rules for adults were judged to be worse in all ages, more generalizable in six- and eight-year-olds, and more rule-independent in eight-year-olds than other transgres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treat social rules for adults as moral rules. In Experiment 3, children evaluated two kinds of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transgressions involving and not involving obvious harms to others. Transgressions involving obvious harms were judged to be worse and worth of more punishment in six- and eight-year-olds than other transgressions. In Experiment 4, 5-year-olds from middle and lower social classes evaluated moral and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Only children from middle class judged moral transgressions to be worse than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However, children from both classes justified moral transgressions on the basis of other's welfare and fairness, but social-conventional transgressions on the basis of the existence of rule or authority.